

오피니언 리더



조 우 성
해안교육연구 대표
우리중앙교회 총무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하나. 생각해 보니 그동안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누가 되면 지역 발전의 차이나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오는 6월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우리 광주와 전남이 통합된 역사적인 첫 선거이니만큼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보들의 활동과 면면을 살펴보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늘 불거지는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논란도 듣게 됐다. 교회 일부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모습 때문인지 교회의 본질과 역사, 시대적 사명이 주로 거론되면서도 이들의 처신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평이동은 있어도 새신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 문화를 즐겼던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선을 행하지 않았고, 산위에서 제물을 먹었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압했으며 우상에게 눈을 돌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세상을 향한 탐심은 교회가 비난을 받는 원인이요, 국가와 공동체의 멸망을 불러 일으킨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해주실 '주님의 때'를 노래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일어나리라 믿는다. 우리들의 탐심으로 더럽혀

단상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어 결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면 서로 그 영광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성도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지나치게 높여 대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회 권위를 손상시키는 알뜰한 언행을 스스로 없애기까지 한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산다고 고백했던 신실한 정치인들도 치열한 선거 형장에 서게 되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또 다른 힘을 바란다. 그 힘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어도 불신앙, 불의에 눈을 감아버린다. 신천지 통일교 이단사이비도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면 '탱큐'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재미도 없으며 기쁨도 없고 영적 거룩과 능력도 없게 보이는데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신자의 수

저,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를 떠난 다음세대들이 다시 돌아와 모든 세대를 일으키는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외형이 화려한 열매가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수십 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사회 소외된 장애인과 이주민, 탈북민, 불우한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품고 헌신하고 있는 광주의 수많은 선교단체들의 기도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가고 있는 광주의 기독교인들과 각 분야 선교 전문 단체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고 함께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찾아다니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부흥의 시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굳어버린 마음을 풀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수많은 회심자들이 교회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식혜와 단술(감주) 같은 전통적 음료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통적인 음료로 식혜(食醴)가 있고, 이와 다른 것으로 단술 또는 감주(甘酒)가 있다. 식혜(食醴)는 음료로 분류되지만, 단술(甘酒)은 비록 알코올 성분이 높지 않아도 이름처럼 술로 지칭된다. 경상도 같은 지역에서 식혜를 감주(甘酒)와 함께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를 구분한다. 단술 또는 감주는 쌀누룩(麴)이나 술지게미를 사용해서 만든다. 주로 사용되는 쌀누룩은 찰쌀이나 멥쌀가루를 약간 써서 단단히 밟은 후에 술알에 싸서 발효균 공팡이를 띄워서 만든다. 단술(감주)은 백미를 밥이나 죽과 같은 정도로 찌서 60도 정도로 식힌 후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서 제조한다.

식혜(食醴)의 경우, 옛기름으로 밥의 전분(녹말)을 엿당으로 가수분해하는 당화(糖化)단계까지만 진행하여 만든다. 옛기름의 당화정도나 엿당(맥아당) 당도가 높지 않기에 (엿당의 당도는 설탕의 1/3 정도), 단맛이나 식혜를 만들기 위해 대부분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를 추가로 넣는다. 1993년 국내 한 업체에서 전통식혜를 캔음료로 개발하는 아이디어로 음료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다고 한다. 단술(감주)의 경우, 누룩 공팡이를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식혜를 만드는 과정과 다르다. 누룩을 사용하기에 당화(糖化) 단계를 지나 발효과정을 거쳐 알코올 성분까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혜가 일반음료인 반면에, 감주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기에 일종의 약한 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주세법에서는 알코올이 1% 이하인 음료는 술로 취급되지 않는다). 막걸리를 만들 경우, 백곡균 효모를 추가로 사용해 더 발효시킨 알코올 농도가 6~13%로 높아지게 한다.

국내에는 상품화된 감주가 거의 없지만, 일본에서는 감주(甘酒: 아마자케(あまざけ))를 (마시는 링거(링거)라 부르며 영양 드링크 형태의 건강음료로 각광받으며 급성장하는 추세다. 물론 일본에 자판기나 매장에서 술지게미를 사용한 감주와 누룩을 사용한

감주의 두 가지 타입이 함께 배치되어 판매되기에 성분 확인해야 한다 [주 재료가 酒精(술지 게미)인지, 米麴(누룩)인지를 점검하면 된다]. 누룩 감주는 소프트 드링크(알코올 도수 1% 미만)로 취급되어 어린이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청량음료 외에도 영양과 건강을 강조한 아마자케 제품의 아이스크림이나 푸딩 등까지 개발하고 있다. 다이어트 열풍과 맞물려 지금의 가공식품 시장의 트렌드가 건강과 편리성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에도시절에도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감주를 여름철 진통 영양 음료로 마셨다고 한다. 감주에 쌀의 전분과 맥아당 등 체내 흡수되는 당류가 있어 에너지가 된다. 무엇보다도 누룩균이 쌀을 발효시킬 때, 에너지 대사에 좋은 많은 비타민 B군들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액인 (주사액 링거)처럼 포도당, 맥아당 등 여러 당류 외에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는 감주(아마자케)를 발효식품의 (마시는 링거)로 여겨 피로회복 용도로 사용한다. 또한 식이섬유까지 들어 있기에 (쌀로 만든 식물성 요거트)로 부르며 소화 촉진과 장내 환경 개선효과도 있어 상당한 인기이다.



이 원 재 교수

- 서울대의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 및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98



장 한 익 선교사
이탈레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탈레선교의 통나무

▶지난호에 이어서

지금 국민들은 다시 이전의 팔레비 왕조는 아니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제정정치 사회가 아니라 제정분리의 나라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격이 없는 날에는 시위대가 거리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이번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인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4,000명까지 내려갔고 목회자들은 하루 밤 사이에 몇 명씩 사라졌다가 며칠 후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고 퍼지면서 그리스도인이 2000년에는 38만 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서 2010년에는 100만명으로 더 성장

하였고 2020년 지금은 150만명으로 부흥하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성장률은 19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이슬람은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종교를 강제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종교에 대한 마지막 선택을 각자의 자유의지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독재정권과 종교탄압과 강제적인 종교입문은 오히려 기독교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하나님 천하보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의 지킬 수 있도록, 전쟁 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하며 할 수 있는 데로 서로 돌아보는 예수사랑의 중언이 될 수 있도록, 4. 전쟁비용으로 200조, 300조를 써도 이슬람이 거짓 종교라는 것을 고고학적인 유물과 역사적인 증거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슬림들은 결코 자기의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탈레선교회가 작년 12월에 출판했던 "무슬림에게 전하는 복음 5단계"를 꼭 이란에 인터넷이 다시 열릴 때 무슬림에게 전하는 복음 5단계를 전하여서 이란의 무슬림들이 참 진리를 배우고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란은 전쟁 중입니다. 일의 시작과 과정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에, 지금 전쟁 중인 이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예배당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사암로(대로변)
*우산동, 소촌동, 신촌동이 교차하는 큰 사거리 인근
- 면적: 대지 121평, 연건평 110평
1층-60평(사택, 식당, 교육관)
2층-50평(예배당, 120~150석)
- 금액: 8억4천만원

010-2679-4934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중 이층 유아실, 방수실
- 금액: 7억원
*리모델링(천장경 환도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중흥동 806-13(2층)
안보회관 건너편
- 면적: 35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공암로 159-1 / 2층
- 면적: 40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권리금 있음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서화로 240-18/ 3층
- 면적: 57평
- 금액: 보증금 500만원 / 월50만원
*권리금: 인테리어비 협의

010-9436-3613

교회건물매매

- 위치: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곡사거리 북광주주세교 옆(전철2호선 일곡사거리역 옆)
- 면적: 대지-72평, 건평-110평
1층 주택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별도)
(1층 주택과 교육관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됨)
2층 교회 본당 40평
3층 유아실, 방수실 15평 (심자가 대형 철골 중첩)
- 금액: 건물 및 교회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운임동 대자로 87 2층
- 면적: 123.2㎡
*뒤편 10평 별도로 있음
*1층같은 2층(공간 넓고 자유로운)
- 금액: 2억원 *살림 가능
*성물, 음향시설, 기타 생활용품 인수가능

010-8609-7224

교회 임대

- 위치: 북항동사무소 맞은편 (목포엘름수양관)
- 면적: 40평 (3층)
- 금액: 보증금 3천만원 월44만원
*조정가능

010-5302-3389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청소년수련관 부근 3층
- 면적: 대지 56평
1층 교회 2, 3층 주택
- 금액: 6억 3천만원
*성구 일체 포함
*수리 후 건물 깨끗

010-8210-5005

교회상가건물 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공암로 182번길(상가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평 131평
1층-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2층-교회 / 3층-조정 사무실 / 4층-사택
- 금액: 6억(조정가능) *교회비품무로 드림(비문해가능)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지시설, 타입중가능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음

010-4154-7945

교회 매매 및 임대

- 위치: 송정동 아파트상가 (반지하 통풍, 환기 잘됨)
- 면적: 30평 예배당(주방겸 목양실)
- 금액: 8천5백만원 / 임대: 5000 월35만원
*성물, 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리모델링, 교통주차편리

010-5600-8890

교회 임대

- 위치: 남구 백운로 66번길 파리버게트 3층
- 면적: 55평
- 금액: 보증금 1,500만 / 월 60만
*비변있음

010-7488-3375

교회 매매

- 위치: 무안군 일로읍 월양리(사랑하는교회)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114평, 교회40평, 사택20평
- 금액: 1억 4천만원
*식당, 창고, 화장실
*성물의 자동차스택스11인승, 집기포함

010-8355-9200